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10 **10** 2016

“그랜드 캐니언이 노아 홍수 때 생기지 않았다는 증거”에 대한 비판



뉴스앤조이(그랜드 캐니언이 노아 홍수 때 생기지 않았다는 증거, 양승훈, 2016년 8월 28일)에 그랜드 캐니언 형성에 대한 창조과학자들의 해석에 대한 비판 글이 실렸다. 이에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학탐사를 인도하고 있는 필자의 이에 대한 변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번 글이 많은 분들께 창조과학탐사에 대한 궁금증도 풀리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는 양승훈 교수가 다루었던 사행천에 대하여만 반론을 내려고 한다.

사행천이란 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강을 의미한다. 그랜드 캐니언 아래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도 록키산맥에서 시작하여 콜로라도 고원을 가로지르며 사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상류로부터 글랜 캐니언, 마블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을 이어서 구불구불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지도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된다(그

림), 사행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상류인 글랜 캐니언에 말굽 모양으로 휘어진 말굽 만곡(Horseshoe Bend)일 것이다. 이곳도 필자의 창조과학탐사의 경유지에 포함되곤 한다.

양승훈 교수의 앞선 글은 전체적으로 “사행 패턴은 느린 침식 하천의 특징”이므로 “대홍수가 갑작스럽게 물러가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날 때는 구불거리는 캐니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요약될 수 있다. 우각호도 언급했지만 이는 사행천의 일부이다. 대부분의 지형학 교과서에는 양 교수의 언급대로 사행천이 느린 하천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현재’ 사행하고 있는 강들이 느린 속도로 흐르기 때문에 나온 동일과정설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험에 의한 결과는 아닌 것이다. 실험에 의하면 사행천은 아주 거대한 유출량에 의해 빠르게 형성이 된다. 특별히 그랜드 캐니언과 같이 깎아지른 듯한 수직의 협곡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셰퍼드(R. G. Shepherd)는 사행천의 형성을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냈는데, 이를 사이언스지에 기고하였다. 이때 대규모의 인공수로를 사용한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유출량이 적어서 하천의 충적층을 휩쓸만한 에너지가 약할 때는 하천이 수평으로 깎였다. 반면에 유출량이 많은 경우 침식면이 수직을 이루는 사행천이 형성되었다. 셰퍼드는 그 결과를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실험 결과는 수직으로 깎인 샌 후안 강의 거위 목 협곡(San Juan Gooseneck: 유타주 콜로라도 고원에 위치한 300m 정도의 깊이의 사행 협곡) 사행천은 하천에서 모든 흙(충적층)을 끌고 나갈 엄청난 강도로 드물게 일어나는 배수과정에 의한 침식작용의 결과다.” (R. G. Shepherd, “Incised River Meander: Evolution in Simulated Bedrock,” *Science* 178, p.409-411, 1972). 그러므로 사행천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실험이 말하듯이 수직으로 깎아지른 협곡은 오늘날의 느린 자연과정으로 형성될 수 없다.

또한 양 교수가 사행천의 횡단면이 대칭을 보이지 않는 것은 오랜 시간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위의 실험에 의하면 사행천에서 굽이치는 부분은 결코 대칭의 협곡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의 양이 많거나 적거나 굽이치는 부분에서 유속은 언제나 바깥쪽(공격사면)이 안쪽(퇴적사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런 유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굽이치는 부분은 대칭이 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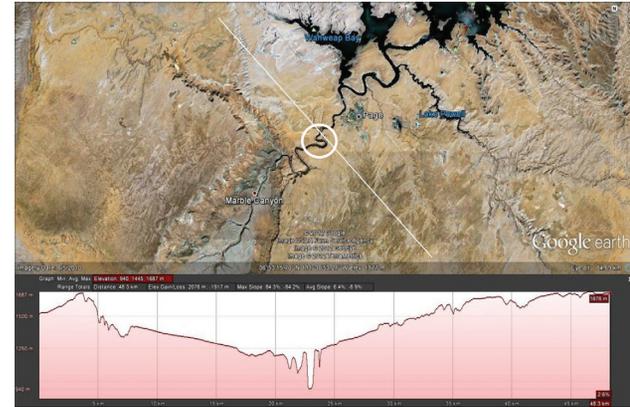
또한 그랜드 캐니언의 콜로라도강 상류는 넓고 평평한 고원 아래서 흐르는데 협곡의 폭에 비해 강물이 흐르는 폭은 아주 좁다. 이와 같이 강폭에 비해 실제 흐르는 강이 좁고 주위 지형보다 낮은 경우를 “언더핏류(underfit)”라고 말한다. 즉 현재 콜로라도 강의 적은 유출량으로서는 지금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이 수십 킬로미터 너비와 깊이의 강폭을 만들 수 없다. 즉 언젠가 엄청난 양의 격변적 배수과정에 의해 침식된 후에 그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다. 더욱이

고원을 벗어난 콜로라도 하류에는 수 미터에 해당하는 돌들로 채워져 있다. 이는 오늘날에 흐르는 콜로라도 강의 유속과 유량으로는 운반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아주 높은 에너지의 배수 과정으로만 운반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증거들 때문에 그랜드 캐니언이 오랜 시간에 의한 침식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해석은 1964년 심포지움부터 회의적이었다(Evolution of the Colorado River in Arizona, in the Museum of Northern Arizona Bulletin 44, p. 1-67, 1967).

실험이 말하듯이 사행천을 지층이 단단해지기 전 엄청난 양의 물에 의한 침식 결과로 볼 때, 깊이 1.8, 너비 최대 30, 길이 430 킬로미터의 그랜드 캐니언은 그 모든 지층이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즉 지층이 아직 굳기 이전에 다량의 물이 후

퇴하는 과정에서 남겨놓은 침식 흔적이란 해석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양 교수가 사행천이나 우각호에 대하여 다소 길게 설명한 것들은 일반지질학 교과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 교과서에 실험이 수반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전의 해석을 그대로



콜로라도 강의 사행천으로 가장 유명한 말굽 만곡(원호) 근처의 사행천과 그 단면도. 단면도 상에 콜로라도 강은 언더핏류를 보여준다.

로 적어 놓은 것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일반지질학의 지식을 갖고 접근하면 실제 지질학자들이 실험에 의해 발표한 결론들과 사뭇 동떨어진 해석을 갖게 된다. 양 교수의 글에 등장하는 ‘지질학적 상식’이란 것의 많은 것들이 1960년대 이전에 실험을 거치지 않은 동일과정설적 해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학에서 가장 신뢰성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실험에 의한 결과이다.

양 교수는 성경이 지질학 교과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필자도 이 말에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까지 저자들에게 의해 수없이 변해왔던 지질학 교과서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은 과거 일어났던 사실을 적은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그랜드 캐니언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노아 홍수 때 형성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랜 시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는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와 창조과학지질학자들은 여러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은 시간이 아니라 대격변에 의한 결과에 훨씬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양 교수의 글에 창조과학탐사 자체에 대하여 추측하여 쓴 부분도 지적할 필요

가 있었다. 필자는 지금까지 350회 이상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학탐사를 인도하여 왔다. 지금까지 참석자들이 일 만명이 넘는다. 여기에 참석자들의 대부분은 양 교수가 말하듯이 지질학적 배경이 없는 일반인들이다. 지질학 전공자의 숫자가 적으므로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적은 수지만 지질학 전공자가 참석한 경우도 있으며 이들은 필자의 해석에 공감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지질학에 대한 지식이 전문한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무슨 말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참석자들은 문제의식도 없이 필자가 말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폄하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창조과학탐사에는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현직 교수, 과학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신학자, 교회와 한국 교계 대표되는 분 등 각계의 전문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분들이 창조과학탐사에서 필자의 설명에 수긍하는 것이 이들의 수준이 낮아서일까? 실제로 창조과학탐사에서 수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간다. 이는 참가자들이 필자가 설명하는 것을 마냥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창조과학탐사를 비판하고 있는 양 교수 자신이 지질학 전공자가 아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 교수가 언급한 것과 달리 창조과학탐사는 몇몇 대형교회들의 적극 후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형교회 뿐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많이 참석한다. 이는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그 일정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 정성껏 모은 자비를 들여 참석한다. 더군다나 양 교수의 이런 추측들은 지금 논하고자 하는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과정 논의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이란 점도 지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 그랜드 캐니언 협곡 형성에 대한 역대 가장 큰 심포지엄에서도 그랜드 캐니언이 다량의 물에 의한 격변적 배수 과정으로 형성된 것을 가장 적합한 해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는 기존의 퇴적과 침식에 관한 실험과도 일치하고, 더욱이 성경에서 언급된 전지구적 홍수인 대격변 기록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그랜드 캐니언 안내자며 지질학 전공자인 레이니의 표현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이런(오랜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의 침식) 방법론론 깊어지기는 거의 어렵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흙탕물만 천천히 흘러서는 그랜드 캐니언이 깎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드물게 일어나는 큰 규모의 홍수로만 깊게 만들 수 있다... 홍수의 엄청난 물은 기반암 위의 모든 자갈과 모래를 하류로 운반시킬 정도로 용량이 아주 컸을 것이다.” (Ranney, Wayne, 2005, Carving Grand Canyon: Evidence, Theories, and Mystery, Grand Canyon Association)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조론자는

이상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인가?



지면의 제한으로 *The New Answers Book1, chapter15, Don't Creationists Believe Some "Wacky" Things?* 의 일부를 편집하였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관한 질문들에 답변할 때, 나는 종종 이상한 것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예를 들면, 어떤 이들은 내가 지구가 편평하거나, 동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구가 문자적으로 몇몇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을 믿는다고 공격한다.

내가 그들에게 나는 그러한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놀란다. 나는 이러한 선입관들이 순진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진실이 아니라고 믿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연구하면 우리는 이러한 소문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1. 공격 : 성경적 창조론자들은 성경 전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

창조론자들은 성경을 문법적-역사적 접근에 따라 읽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문구를 그 문맥과, 저자, 독자, 그리고 문학적 장르 등을 고려하여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성경을 솔직하고 평이한 방식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문자적 해석"이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성경을 부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고린도후서 4:2)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잠언 8:8-9)

성경을 “평이하게” 읽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구절이 역사적 기술이고, 어떤 것이 시이며, 어떤 것이 우화로서 기록되었으며, 어떤 것이 예언으로서 기록되었는지 등이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문학 장르로 기록되었고 그것에 따라 읽어야만 한다. 창세기는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한다; 그것은 역사적 서술의 형태로 기록되었고, 그것을 상징이나 시와 같은 다른 문학 장르로 읽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예를 들면, 한 비-기독교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은 없다”고 시편 14편 1절에서 말한다. 그러나 문맥상에서 그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1). 문맥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올바른 이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창세기의 날들을 해석하기 위하여, 당신은 각 날들이 천년이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수백 만, 혹은 수억 년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의 문맥을 살펴보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8 - 9).

이 구절은 직유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경우 특별히 그분의 인내에 관하여 말씀하기 위하여 하루를 천년과 비교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또한, 이 구절은 창세기의 날들을 가리키지 않고, 따라서 이것을 창세기 1장의 날들의 길이에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평이하게 읽었을 때, 이들 구절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데 인내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질문을 했던 그 신사는 지구가 수백만 년 이상 되었다고 하는 인간의 사고에 근거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믿음들은 그로 하여금 역사적-문법적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 이러한 이상한 해석을 하게끔 한다.

따라서, 성경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평이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문맥에 맞게

읽는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의미하셨는지를 배우고, 은유적이거나 상징적 구절에 부자연스러운 문자주의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추천 글 : *The New Answers Book 3, chapter 8: Did Bible Authors Believe in a Literal Genesis?*

2. 공격 : 성경적 창조론자들은 반-과학적, 반-논리적이다.

성경적 창조론자들은 과학을 사랑한다! 사실, 대부분의 과학 분야는 아이작 뉴턴(역학, 중력, 미적분학), 마이클 패러데이(전자기학, 장 이론), 로버트 보일(화학), 요하네스 케플러(천문학), 그리고 루이스 파스퇴르(박테리아학, 예방수사) 등과 같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개척되었다. 성경을 믿은 그리스도인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과학적 방법론을 고안했다.

이러한 과학분야가 개척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법칙을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 오늘날도,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성경을 믿고, 훌륭한 관찰(실험) 과학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논리라는 개념도 성경적 세계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 나온다. 우리는 논리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논리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논리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므로, 비물질적 영역을 거부하는 물질주의적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물질주의적 견해로 보면, 논리적 사고는 단지 뇌 안에서의 화학작용이라는 면에서 비논리적 사고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논리에 대한 인식은 무작위적 과정으로 인한 것이며, 역시 물질이 아닌 절대적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성경적 세계관 하에서, 물질적 존재가 아닌 논리와 진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순수한 물질주의적 세계관 하에서, 물질적 존재가 아닌 논리와 진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은 제공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뇌가 무작위적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의 결과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뇌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논리가 진실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논리와 과학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위의 기독교적 원칙들을 빌려 써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고백하는 세계관에 심각한 내부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

추천 글 : *The New Answers Book 2, chapter 14: Can Creationists Be “Real” Scientists?*

Bodie Hodge / Answers in Genesis의 저자(M.A. Mechanical Engineering),

번역 / 이충현

창조과학탐사

언론인 창조과학탐사

지난 7월 30일-8월 4일 한국 언론 기자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일간신문과 CBS, 국민일보, 기독교신문, 기독교공보, 기독교연합신문, 기독교보, 성결신문, 기독교타임즈, CGNTV, 뉴스앤조이 등 기독교 언론사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창조과학탐사 동안 창조와 진화, 격변적 홍수 등의 증거들을 다루고 유신론적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 다중격변론과 같은 타협이론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에는 허호 사진 작가님도 동행하셔서 훌륭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연합팀

지난 8월 4-12일 부천, 인천, 수원, 서빙고, 양재, 보스톤 온누리 교회(담임목사 이재훈)가 연합하여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연합으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석한 분들은 피조물에 들어있는 성경의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붙고 있는 타협이론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공감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창조과학탐사에 와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일본팀

지난 8월 15-19일 일본인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일본에서 창조과학을 시작하신 우사미 마사미 박사님과 현 일본창조과학회 회장 우사미 미노르가 함께 참석했습니다(사진). 일본은 1877년부터 진화론을 교과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이후 일본 선교에 진화론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교회 출석은 전체 인구의 0.1%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조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팀은 규화목 국립공원도 경유했습니다. 초창기 창조과학탐사는 이곳

이 경유지로 들어있었으나 먼 거리에 따른 어려움으로 한동안 제외되어 왔습니다. 규화목 국립공원은 노아홍수 동안의 화산활동과 관련된 퇴적 작용을 설명하기 훌륭한 곳입니다. 내년에도 몇몇 창조과학탐사 팀의 일정에 이곳이 들어있습니다. 이 재만 선교사는 오는 11월 한 주간 일본의 동경에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많은 결실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본 창조과학 사역이 일본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창조과학탐사에 통역은 손제현 선교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일본팀 / 작은 사진 왼쪽부터 우사미 미노르 회장, 이재만 선교사, 우사미 마사미 박사, 손제현 선교사

부산 호산나교회 청년부

지난 8월 22-26일 부산 호산나교회(담임목사 유진소) 청년부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닷새간 창조와 진화,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홍수 심판, 지구의 나이 등 각 부분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특별히 타협이론의 문제점과 그 영향을 다루며 훨씬 진지해졌습니다. 부모 세대도 좋지만 다음 세대가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과학탐사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산 호산나교회 청년부



뉴저지초대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지난 8월 29일-9월 1일 나흘간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매번 참석할 때마다 참석자들이 열심히 임하십니다.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빨리 사라지는 것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일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진화론적 교육이 이를 막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오는 팀들이 많은 반면 미주 한인교회에서 참석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미주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도구로 다음 세대에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는 기회를 넓히시길 기도합니다.

중부 창조과학학교

제 21 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개강합니다.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순복음시카고교회(담임 김판호 목사)에서 진행됩니다. 기원에 대한 궁극증과 인류의 처음 역사에 대한 진실한 탐구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얻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 일들을 현실 세계의 증거들을 통해 확증하며 살아있는 성경의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의 : 224-406-4671 / 630-400-6114 / Creationbara@gmail.com (이동용 박사)

18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모집

유학생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겨울 방학 기간에 열립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참여 희망하는 강추 프로그램이므로 조속히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와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월 2-5일(월-목)

경유지 : LA 출발 - Mojave Desert- Grand Canyon-Bryce Canyon - Zion Canyon - LA 도착

참가 자격 : 미국에 유학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인도 : 이재만 선교사(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석사)

참가비 : \$50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임)

문의 : Tel. 562-868-1697, hisark@gmail.com

제 8기

ITCM 모집

창조사역 집중 훈련(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ITCM)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8기 ITCM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2월18일까지 8주간, 미국 엘에이(Los Angeles)에 소재한 창조과학선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 대학교 2학년 이상의 청장년으로, 창조과학 사역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문적으로 사역하기 원하는 자로서,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www.HisArk.com About Act)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훈련 내용 : 성경-과학-사역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조과학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창조과학탐사와 세미나 및 필드 트립에 참여합니다. 더불어 성경공부와 창조과학 도서 읽기, 프리젠테이션 및 토의 활동 등을 통해 성경적인 창조론의 중요성 및 실재를 습득하며,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증거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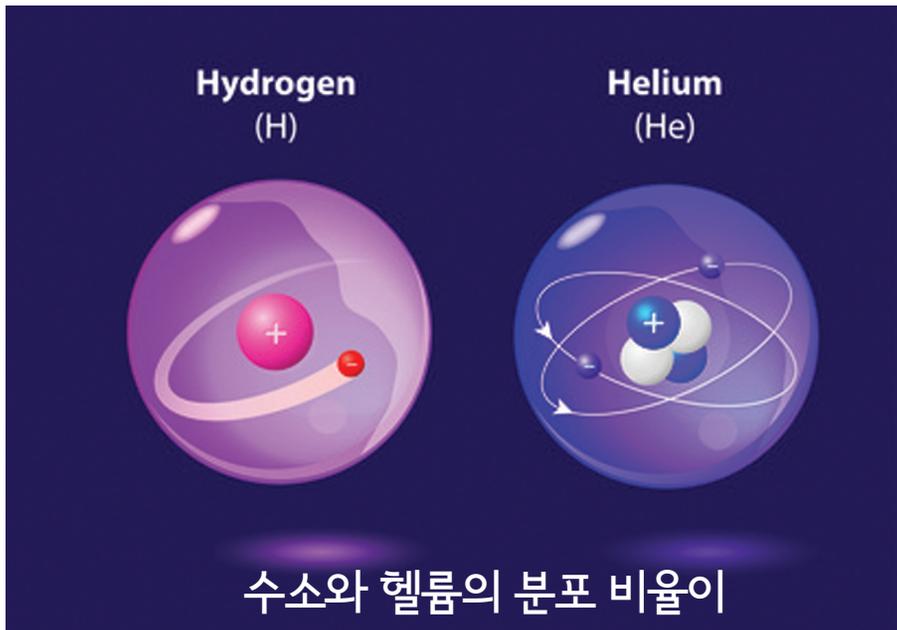
ITCM 지원 방법

1. 신앙고백 : www.HisArk.com About Act의 What We Believe에 명시된 6 항목에 동의하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서 1부
2. 대학 혹은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3. 본인 소개서 1부 (지원동기와 이력서 포함하는 자기 소개서)
4. 참고인 3명(연락처가 명시된 참고인 3명 중 1인의 추천서 포함)

위 4가지 지원서류는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본인소개서** 양식은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메일로 문의 및 접수해주시고, 서류 심사와 면담(원거리의 경우 전화통화) 후 8~10월 사이에 7~10명을 선발합니다.

보내실 곳 : 노휘성 remaininhislove@gmail.com

ITCM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isArk.com) [훈련 프로그램]을 참조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빅뱅의 증거인가?

거창하게도 빅뱅은 우주, 그야말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인 이 실제 세계의 탄생을 다루는 이론이다. 그마만큼, 이 이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설명해내야 할지 짐작할 수 있다. 우주의 가장 기본 물리적 요소인 시공간과 물질 그리고 물질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형성을 설명해내야 함은 물론이다. 물론 이 세상이 물리적 요소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물리 요소들만 따져본다 해도 과학적으로 시간이 무엇인지, 공간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과학자들은 아직 그 정의를 명확히 내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더욱 설명할 수 없다. 힘의 기원은 잘 설명하고 있을까? 강력, 약력, 전자기력, 중력 이 네가지 힘의 통합을 연구하는 것이 물리학의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빅뱅이론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을까? 우주론자들은 빅뱅 모델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 대부분(99%)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을 실제와 일치하게 예측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점을 빅뱅이론의 매우 성공적인 근거로서 제시하여 왔다.

현재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3:1정도로, 각각 우주 전체 물질의 75%, 25% 가량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빅뱅 이후 핵합성

(nucleosynthesis)과정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과 일치하기 때문에 빅뱅이 물질계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과 실제와의 일치는 어떠한 과정으로 도출된 것일까? 빅뱅지지자인 로렌 크라우스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주에서 관측되는 가벼운 원소들(수소, 헬륨, 리튬)의 풍부한 양을 매우 멋지게 설명해 내는 바로 그 계산은 우주에 존재해야 하는 보통 물질인 양성자와 중성자가 얼마나 있는지 즉 더 많아야 하는지 또는 적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빅뱅에 의해 생성된 양성자와 중성자의 초기 밀도는 관측된 수소, 헬륨 그리고 리튬의 양에 맞춰서 결정된 것으로서, 우리가 별과 가스 등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의 양의 두 배 정도로 계산된다.(밑줄 역자 삽입)^[1]

크라우스의 설명에서 우리는 빅뱅이론이 독립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의 양을 계산해 낸 것이 아니라, 현재 우주에서 관측된 가벼운 원소들(수소, 헬륨, 리튬)의 양을 대입하여 계산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빅뱅이 맞다는 전제하에 관측된 비율을 도입해서 물질의 양을 계산한 후 실제 분포와 이론의 예측이 일치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분명 순환논리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계산해낸 양성자와 중성자의 양이 전자기파로 감지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의 두 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의 물질들(관측되지 않는 물질들)이 숨어있는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서는 다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빅뱅 모델을 우주의 물질 분포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해낸 이론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각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흡수 스펙트럼의 강도

를 비교하여 알아낸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은 대부분의 별에서 약 3:1로 나타난다. 이 비율은 빅뱅에서 예측하는 3:1의 값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론으로 우주 기원에 대한 빅뱅 이론은 확고한 지지를 얻었다.^[2]

그러나 허벌트 박사(Ph. D. in physics)는 '이 성공적인 계산은 관측된 양에 일치시키기 위해 빅뱅 모델에 짜맞춰 넣은 것이기 때문에 빅뱅이론이 주장하듯 가벼운 원소의 양을 성공적으로 예측했었다는 평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3]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빅뱅이라는 우주 기원 모델을 확고한 이론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반 세기가 넘게 진행되어 왔다. 좋은 이론은 실제에 대해 예측성이 높아야 하지만, 빅뱅이론은 예측성이 높아 보이도록 만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우주의 물리적 기원을 거튼히 설명하는 모델이 아닌 것이다.

전도자는 묻는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전8:1a) 그리고 권면한다. “육체가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여라”(전12:7) 우리의 영혼이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와 분리되는 날이 오기 전에 물질 영역과 비물질 영역 모두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궁극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회성 / 교과과서

[1] Krauss, L.M. 2012. A Universe from Nothing. New York: Free Press, 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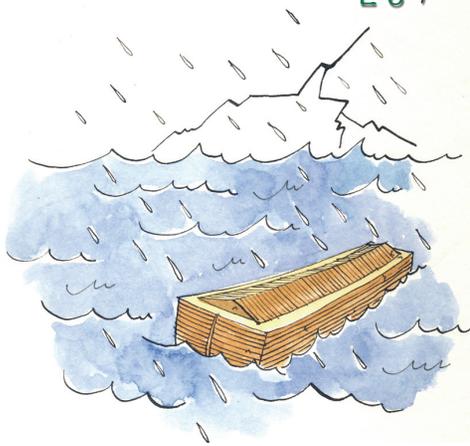
[2] 안태인 외 11인,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32, 2011

[3] Hebert, J. 2013. Dark Matter, Sparticles, and the Big Bang. Acts & Facts. 42 (9): 17-19

창조과학탐사

간증 / Kibi America 팀

6/25-27, 2016



노아의 홍수 때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의 한줄 한줄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주신 은혜는 제게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강신영 전도사 <NJ 가스펠헬로쉽교회>

창조론적 지질학 역사 과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넓은 생애 동안 창조적 복음 증거자로 살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상탁 <서울 사랑의 교회>

“화석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성명심 <온누리교회>

풀 한 포기, 나무하나, 하늘을 나는 새,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소중한 아름다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영숙 <온누리교회>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기도하며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온 맘 다해 예배합니다. 모두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창조과학 탐사 꼭 함께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김미경 집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친 후’ 홍수 심판의 현장을 설명하시려고 ‘그랜드캐년’을 두신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생명 보존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조한주 <서울 중로경찰교회>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체험하고 확보할 수 있었던 요긴한 여행이었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창조의 증거들을 나누고 가르치겠습니다. -오정인 <NJ 가스펠헬로쉽교회>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증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2017 ACT Schedule

9/21-11/23	중부창조과학학교 (순복음시카고교회), 이동용
9/26-10/1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10/6-13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5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10/21-23	창조과학세미나 (빙햄튼한인침례교회), 이재만
10/24-29	창조과학탐사 (하나님의성회 지방회), 이재만
12/22-2/18	제 8 기 ITCM
1/2-5	창조과학탐사 (18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7-21	창조과학탐사 (군산드림교회), 이재만
2/21-27	창조과학탐사 (인천동춘교회), 이재만
3/27-30	창조과학탐사(텍사스교회협의회), 이재만
3/30-4/7	창조과학탐사(연합팀), 이재만
4/10-15	창조과학탐사 (명성교회), 이재만
4/16-22	창조과학탐사 (높은뜻푸른교회), 이재만
4/23-27	창조과학탐사 (하늘샘교회), 이재만
5/1-7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1), 이재만
5/9-16	창조과학탐사 (서초총신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